

鍼灸銅人の 發達과 변천과정연구

孫 仁 喆*

ABSTRACT

The Reserch of Alternation and Developement of Acu-Figure

Son, In Cheol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ine College, Won Kwang University

1. as following report, bronze-figure manufacture started already in Jin(秦) monarchy. Bronze-figure had been existed in Ju(周) monarchy by ancient book, which is called Guem-In. And in 221 B.C., bronze-figure was manufactured.
2. In history, acu-figure was manufactured in 1027, Song(宋) Dynasty at first to study medicine.
3. ChunSeong acu-figure etc. were remade but new acu-figure was not.
4. GunRuang acu-figure, etc new acu-figure made in Jin(潛) Dynasty.
5. ChimGuem acu-figure are preserved in Korea at now.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經穴學教室

※이 논문은 1998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I. 緒論

鍼灸銅人은 標準 人體를 모델로 하여 제작된 模型에 한의학의 基礎 理論인 經絡과 經穴을 객관적으로 認識할 수 있도록 만든 醫療 學習 및 臨床用 裝備이다. 이러한 鍼灸銅人的 초기製作은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秦나라 때부터 銅人을 제작하여 醫官들의 鍼灸 實驗용과 醫官 試驗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¹⁾되고 있다.

現存하는 最高의 銅人은 宋代 仁宗(1027년)時 王惟一에 의해 만들어진 天聖銅人으로 醫官院에서 鑄造한 것^{2,3,4)}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많은 종류의 鍼灸銅人이 鑄造되었으며, 현존하는 것을 보면 嘉靖銅人(1522-1566), 乾隆銅人(1745), 複制 正統銅人(1904), 中醫研究員에 所藏되어 있는 雍正銅人 등⁵⁾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원·명대에 만들어져 전해져 왔다고 주장⁶⁾하는 銅人이 昌慶宮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근래 많은 종류의 동인형이 제작되어 의료용 장비로 활용하면서 보급하고 있다.

鍼灸銅人이란 銅으로 만들어진 것에 국한하지 않고 재료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인체 경혈모형을 포함하여 부른다.

이러한 동인에 대한 제작기술의 발달로 현대에 와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중국, 일본 등지에서 제작된 각종 銅人形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면서 自國의 전통의학에 대한 홍보와 경제적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鍼灸銅人에 대한 研究로는 중국의 馬繼興¹⁾이 “鍼灸銅人과 銅人穴法”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여 발표하였고, 金⁵⁾은 “古典鍼灸銅像과 中國樹脂銅像에 대한 比較研究”를 하였으며, 鄭⁶⁾은 “昌慶宮 銅人에 대한 小考”에서 현재 창경궁에 소장되어 있는 鍼灸銅人이 중국에서 전해져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著者는 經絡 經穴의 客觀化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각종 文獻에 나타나 있는 鍼灸銅人の 發達과정을 정리하여보고 이를 통해 鍼灸銅人の 초기개발과 활용 및 변천과정을 확인하여 韓·中·日 三國의 銅人에 대한 연구概況을 알아봄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라 생각하는 標準 鍼灸銅人の 제작을 위한 根據자료를 삼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본 연구에는 馬繼興의 鍼灸銅人과 銅人穴法을 주로 참고하였다.
2. 초기의 銅人 및 針刺人體模型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3. 세계 최초의 銅人인 天聖銅人에 대해 알아보았다.
4. 元, 明代의 針灸銅人에 대해서 알아봤다.
5. 近代의 針灸銅人에 대해 조사 정리하였다..
6. 日本의 鍼灸銅人에 대해 알아보았다.
7. 韓國의 鍼灸銅人을 알아보고, 標準鍼灸銅人의 開發 및 製作과정을 整理하였다.

III. 本 論

제 1절 초기의 銅人 및 針刺人體模型

1. 銅人 제조의 由來¹⁾

현재 존재하는 자료에 따르면 先秦에서 秦代에 이를 때 이미 銅人제조가 시작되었다. 일찌기 지금으로부터 3천여년 前인 殷代에 이미 銅을 많이 써서 제조한 것이 출현하였는데, 전쟁시에 방어목적의 銅人 가면으로 사용되었다. 원래 사물의 사진처럼 조각하는 중에 이러한 종류의 銅人 頭部를 조각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銅으로 인체의 局部 조형을 제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古代의 문헌 기록내용을 보면 周시대에는 이미 비교적 거대한 銅人の 출현이 있었다. 당시에는 “金人”이라 불렸다. 이후 B.C 221년 (秦始皇 26년) 일찌기 12개의 매우 큰 銅人을 주조하였다. 秦代에 鑄造한 이 12개의 큰 銅人은 각 銅人 상면에 “各重千石”이란 설명이 되어 있으며, 후대의 下面의 문헌중에는 銅人の 무게와 크기에 대해 쓰여있다.

秦代이후 漢代에서는 長樂宮 내에 위의 12개의 銅人중의 일부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東漢末 董卓이 秦代의 銅人을 녹여서 화폐를 만들었다. 董卓이 훼손시킨 銅人은 <關中記>에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銅人 중의 10구가 훼손되고 2개의 坐銅人이 남았다고 되어있다. 이 두개의 坐銅人은 후대 <魏略>에 魏明帝 때 (AD 227~239) 銅人을 長安

으로 옮겼다고 되어있다. 이 두개의 坐銅人 역시도 후에 진에 이르러 357~383년 조음에 사라지게 된다.

晉과 南北朝 시대에는 역사상 유명한 조각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인체를 조각하는 예술방면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이들은 인체의 外形 윤곽만을 조각하였을 뿐 인체 内部의 臟腑등의 해부구조를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唐·宋代에 이르러 銅人제작은 진일보하였다. 唐朝에서는 “臟腑百節”등의 구조 특징이 있는 인체모형이 출현하였다. 北宋 이전에는 銅人 제조의 목적이 祭祀나 진열에 관계된 것이었는데, 北宋대에 이르러 應用 科學의 용도로 活用하면서 人體의 解剖 부위 및 經脈 혈도를 測定하여 銅으로 人體 模型을 鑄造하였다.

2. 鍼刺모형의 出現

일찌기 針灸銅人이 만들어지기 전인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鍼刺用 木製模型이 만들어졌는데 오동나무로 만들어져 腹部에 鍼을 刺鍼하도록 되어있었다.

제 2 절 天聖銅人

1. 世界最初의 銅人^{1.2.3.4.7)}

역사상 세계최초로 인체 해부 및 경맥 혈도를 측정하여 사용한 針灸銅人은 1027년 宋나라 仁宗 天聖 5년에 醫官院에서 당시 御醫인 王維一에 의해 주조된 것이다. 2개의 銅人을 주조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醫官院과 大相國寺 内의 仁濟殿에 두고, 醫官院에서는 醫官과 生徒들이 研究 學習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大相國寺는 본래 北濟時 大建國寺를 宋代에 重建하면서 大相國寺라 改名하여 침구사 試驗과 침구경락수혈, 内臟 骨骼을 학습하여 중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鍼灸銅人の 鑄造는 學術방면에 있어서 높은 가치뿐만 아니라 歷史的으로도 중요한 意義가 있다. 그중 특별히 표현된 解剖學과 의학의 발전에 미친 貢獻度는 대단하다.

天聖銅人은 전신을 1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胸腹腔을 벗길 수 있으며 내부에는 나무로 된 臟腑모형이 있으며 사지부분은 나무로 된 骨骼이 있다.

天聖銅人の 醫學貢獻度는 먼저 經脈學說에서 나타난다. 이 天聖銅人에는 14經脈의 진행 방향에 따라 經穴이 표시되어 있다. 以前에도 局部分類(頭部, 頸, 軀幹部의 經穴)와 經脈分류(四肢部의 14經脈穴) 모두 결합한 방법은 甲乙經과 千金要方 같은 책에 있기도 했지만 任脈, 督脈이 12正經과 같이 14經脈이 완전히 된 것은 北宋시대 天聖銅人의 <銅人臟穴針灸圖經>으로부터 시작된다. 天聖銅人の 인체 經穴位置는 실물에根據를 두어 명확하게 標準의으로 되어 있다.

이 銅人의 출현 이후에 많은 종류의 銅人이 만들어졌는데, 역대로 鍼灸銅人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 1)鍼灸學習에 사용되어져서 鍼灸研究者에게 정확한 經脈經穴의 표준이 되었다.
- 2)人體의 體表와 內臟解剖의 표준이 되었다.
- 3)醫生들의 考試에 사용되었다.
- 4)外科와 整骨 按摩 같은 臨床醫學에 활용되어 정확한 取穴에 참고되었다.
- 5)약물(고약과 같은 것)을 환자에게 볼일 때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다.

11세기 天聖銅인이 만들어진 후에 銅人의 經脈臟穴의 전문저작인 <銅人臟穴針灸圖經(후대에 銅人經)>이 만들어졌고, 銅人經脈과 經穴의 專門圖象인 <銅人明堂圖(뒤에 銅人圖)>가 만들어졌다.

銅人の 재료는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銅 이외에 철, 나무 주석과 근대의 종이, 석고,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鍼灸經穴人體模型을 재료에 상관없이 ‘銅人’이라고 부른다. 즉 針灸銅人라해서 銅으로 만들어진 것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인체경혈모형들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天聖銅인이 만들어진 후 약 100여년이 지난뒤 1126년 宋나라 흥종때 북송의 수도 汴京(지금의 하남성 개봉시)가 금나라에게 함락되게 된다. 그로인해 당시의 汴京의 각 醫官員과 大相國寺안에 보관되어 오던 2개의 天聖銅인이 민간에 유출되게 된다.

이 두개의 天聖銅人 중 하나는(이하 간략하게 제1구 銅人) 金人이 변경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사라지게 된다. 그 銅人이 국외로 流出되는 정황에 이르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天聖銅人 가운데 다른 1개는(이하 제2구 銅人)

은 변경에서 사라진후 훌러흘러 湖北지구에까지 이르게 된다.

1)南宋~元代

北宋 遺民 周密씨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외삼촌 章叔恭씨는 일찌기 襄州에 서 작관을 할 때 그銅人이 현지 민간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齊東野語>에 기록하기를 “일찌기 외삼촌 장숙공의 말을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옛날에 양주의 관리가 말하기를 일찌기 鍔鍼銅人을 얻었는데 전체 형상이 정밀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腸腑가 갖추어지지 않은게 없다. 그의 鈎穴은 金나라의 책에 있는 穴名과는 다르다. 무릇 등, 얼굴 두개의 기관이 서로 합해져 전신에 응합된다. 대개 오랫동안 의사를試驗할 때 이것은 사용했다. 그 만든 방법은 밖에 황파라핀으로 밀랐고 가운데로는 수은으로 채웠으며 醫工으로 하여금寸을 알 수 있게 하여 鍔鍼할 穴자리를 살피게 한다. 穴位에 정확하게 鍼을 끊으면 水銀이 밖으로 나온다. 조금이라도 誤差가 있으면 鍼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역시 아주 정밀한 기계였다.”라고 말했다.

이 銅人은 양주에까지 이르게 된다. 周密의 기록에 의하면, ‘후에 趙南中이 새로이 보수하여 南宋政府에 현납하였다’ 한다. 즉 <齊東野語>에 말하기를 “後에 趙南中이 内部로 들어왔고 叔恭이 일찍이 두 개의 그림을 주었는데 나무에 새겨 전해진다.”라고 했다.

이 銅人은 南宋정부가 멸망한 후 元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데 元代에는 銅人이 오래되어 훼손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으며 한번 새롭게 보수하였을 뿐이었다.

2)明代 이후

明代에 이르러 1366년에 제2 銅人이 宮內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明정부는 2개의 鍔灸銅人을 새롭게 제조하게 되면서 제2天聖銅人은 明皇室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明代 말기에 이르러 제2天聖銅인의 소재는 불명확해진다. 근대에 어떠한 사람이 비록 제2天聖銅인이 明代에서 清代까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맞지 않는다.

2. 현재 일본에 있는 중국의 옛 针灸銅人(天聖銅人)의 考證

일본에 두 개의 针灸銅人이 있는데 중국의 针灸銅人과 같은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하나가 宋代에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의 针灸銅人이 분명하다. 현재 일본 동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박물관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중국의 銅人과 일치한다. 일본에서는 국보급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것은 16세기경에 일본에 들어와서 19세기 이후부터 醫家의 중시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고찰이 진행중인데 제도 연도가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3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는 현재 일본 동경박물관에 있는 针灸銅인이 宋代의 天聖시대에 제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내 학술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는 明代에 만들어졌다는 학설이다. 이것은 일본인인 石原明의 주장이다.

셋째는 알수 없다는 학설이고

넷째는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北宋代의 天聖市의 銅인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유: 1)銅인의 사람 모형의 각 부분의 특징이다. 그가 외관형태가 北宋시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 根據이다.

2)銅인의 骨度法, 經穴, 經脈 등의 比例와 大小가 <銅人臍穴針灸圖經>에 기재된 것과 완전히 같다. 또한 두가지 모두의 經穴 수가 354개라는 것도 같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11개의 혈명이 다르다는 것인데, 膝眼, 督俞, 氣海俞, 關元俞, 風市, 急脈, 泉陰, 下頤, 下拔俞, 接脊, 中極이다.

3)銅인의 腸腑와 骨格이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 이상은 天聖銅인의 특징이었다.

4)남경의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天聖銅人에 刺鍼 한후 수은이 나오는 시험을 한 결과 일본의 天聖銅인과 완전히 똑같았다.

5)銅人에 금을 입혔다는 것인데 北宋 시대에 대량의 黃金을 채취해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고 문헌에 銅人에 金을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 다만 일본에 있는 銅人은 거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金이 벗겨진 것이다.

6) 역사문헌을 살펴보면 銅人을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인력과 물자가 풍부했던 때는 北宋을 제외하고 明代, 清代 뿐이었다.

3. 天聖銅人이 일본에 들어가게 된 경로

중국 고대 鈎灸銅人이 일본에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세 가지 설이 있다.

1. 중국이 직접 일본에 전해주었다는 것
2.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훌륭한 경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
3. 중국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중국에서 전해진 銅人이 있었는데 이때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설이다.

天聖銅인이 일본에 전해진 후 오래지 않아 일본에서는 寛文銅人이라는 金屬網式銅인이 제작되었다. 1662년(寛文 2년)에 제작된 이 銅人은 飯村石齋등의 인물에 의해서 제작되었는데 銅人의 전체 부위가 銅으로 주조되었으며 天聖銅人과 유사하게 체강내에는 나무로 臟腑와 骨格이 만들어져 있었다. 단 이 銅人은 일본인의 신체를 본따 제작된 것으로 身長이 天聖銅人에 비해서 적다. 이 銅人은 외부를 열지 않고도 체외에서 金屬網을 통해 능히 체내의 臟腑와 骨格을 관찰할 수 있다.

@ 寛文銅人の 기타 특징

- 1) 銅人의 身長: 143厘米(4尺 8寸)
- 2) 9개의 大片과 6개의 小片이 정교하게 용접되어 있다.
- 3) 手, 足, 腹部의 형태가 선명하며, 指紋까지 보인다.
- 4) 12經脈의 流注를 정밀하게 표시해 두고 있으며 奇經八脈의 순행도도 표시되어 있다.
- 5) 經穴部位는 紅色點으로 표시해 두었으며, 옆에 각 經穴名을 기록해 놓았다.
- 6) 우측 발의 내측에는 “寛文二年壬寅十二月吉日成”的 12字, 좌측 발의 내측에는 “考: 飯村石齋, 秋田湖庵. 工: 庵田傳兵. 簽: 又三郎”的 19字, 좌측 발의 외측에는 “寛政九年修補, 松平頼英寄贈”的 12字가 적혀 있다.

이 銅人은 일본 醫學界가 天聖銅인의 영향을 받아 직접 만든 銅人이며 銅人의 몸에 있는 글을 볼 때 1662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592년부터 1662년까지 70년간은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시기이다. 여기에서 天聖銅인이 16세기 말엽에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流入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것 이외에도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약 18세기 이전에 일본에서는 天聖銅人을 본따 나무로 된 소형 “銅人”을 제작하게 된다. 이 “銅人” 역시 天聖銅인이 18세기 이전에 일본에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 寛文銅人과 소형 木角 “銅人”, 중국의 天聖銅人은 함께 1797년부터 19세기 60년대 말 까지 幕府醫學館에 소장되어지다가 1868년 일본의 明治維新 이후 1877년(明治10년) 동경의 皇室博物館에 옮겨지게 된다. 1877년 이후 현재까지 天聖銅人은 약 100여년간 日本皇室博物館에 소장되어져 오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天聖銅人이 일본에 전파된 경로를 살펴보면

- (1) 약 16세기(明代 中期)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
- (2) 16세기 말기 藤清正氏에 의해 일본으로 유입
- (3) 17세기 중기(1662년) 이후 寛文銅人, 소형 목각 “銅人” 등이 일본인에 의해 제작
- (4) 17세기 말(江戸幕府 末期) 天聖銅人이 幕府醫學館에 소장
- (5) 1877년 天聖銅人이 日本皇室博物館에 옮겨져 소장(지금의 日本國立博物館)

4. 天聖銅人의 형태구조적 특징¹⁾

銅인의 전체는 청동으로 鑄造되어져 있으며, 身長은 162cm, 性別은 건장한 청년 남자, 자세는 直立姿勢이며, 양팔은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으며 그 중 左側 팔은 손등이 전면을 향하도록 해서 평고 있고 右側 팔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해 구부리고 있다.(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銅人은 우측 팔이 손등이 앞을 향해 구부리고 있으며 좌측 팔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해서 평고 있다) 下肢는 양측 모두가 앞을 향하도록 하고 서 있다(그림1).

@銅인의 각 부위의 길이

| | |
|--------------------------|-----------|
| 胸圍(齊乳測量) | - 88.6 cm |
| 腹圍(齊臍測量) | - 85.2 cm |
| 頭圍(齊兩耳上際) | - 60.0 cm |
| 頸圍(中央部測量) | - 36.0 cm |
| 背部全長(제 7頸椎에서 尾骨端까지) | - 61.0 cm |
| 肱全長(肩關節의 肩顎(?)穴에서 肘關節까지) | - 31.4 cm |
| 前臂全長(肘關節에서 腕關節까지) | - 26.8 cm |
| 股全長(耻骨 上緣에서 胛骨 內上踝까지) | - |

42.4 cm

小腿全長(腓骨 内上踝부터 足内踝까지) -
35.2 cm

이 天聖銅人은 12개의 斷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몸의 前面部(顏面, 頸, 胸, 腹部등)
- ② 後頸部
- ③ 背腰臀部
- ④ 左側肩肱部外側
- ⑤ 左側前臂後面과 手背部
- ⑥ 右側前臂前面部
- ⑦ 右側肱, 肘, 前臂後面부
- ⑧ 左側股部에서 體의 前部
- ⑨ 左側의 膝臍部에서 小腿後面全部
- ⑩ 右側의 股外側部
- ⑪ 右側小退部서 足背前面部
- ⑫ 前陰部

銅人の 體腔內에는 나무로 된 臟腑가 존재하며 四肢部에도 역시 나무로 된 骨格이 있다. 銅人の 體表에는 經脈이 黑色線으로 그려져 있으며 經脈線上에 經穴들이 분포되어 있다. 經穴들의 자리에는 體腔에 조그마한 구멍들이 뚫려 있으며 그 구멍들 외측에는 經穴名이 기재되어 있다. 이 穴名들은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도료로 써놓은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판독하기가 어렵다. (頭部의 下關, 和髎, 絲竹空, 瞳子髎, 天衝, 浮白, 完骨, 陽白과 下肢部의 伏兔, 陰市, 梁丘, 槗鼻 등의 소수 經穴을 제외하고) 全身의 經穴 총수는 좌우 합해서 674개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天聖銅人은 右側拇指, 左側跟腱部位가 떨어져 나가 소실되었고 몸의 주위 변연 부위가 접합되지 않으며 우측의 肩胛부위에 거북이와 같은 균열이 있는 등 현재 여러 부분이 손상되어져 있다.

제3절 元·明代의 针灸銅人

1. 元代의 针灸銅人

元代에는 전국 초기 南宋으로부터의 이어져온 天聖銅人의 보수등이 이루어졌을 뿐, 새로운 銅人의 주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明代의 针灸銅人-正統銅人(光緒銅人)¹⁾

明代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문헌에 근거하여 銅人을 二회에 걸쳐 제작하였다. 正統銅人과 嘉靖銅人이 그것이다.

明代에 1차로 제작된 銅人은 明나라 英宗 正

統 8년에 제작된 것으로 天聖銅人보다 약 400여년 후의 일이다. 당시에는 <銅人腧穴針灸圖經>이라는 책이 있긴 했지만 유실된 부분이 많았었고 당시에 있던 天聖銅人 역시도 녹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明政府는 銅人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正統銅人이다. 이 正統銅人은 주조된 후에 명나라의 太醫院이라는 관청에서 보관해 清代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청나라 사람 朱彝尊은 「曝書亭集」에서 正統銅人이 明나라 英宗 때 주조되어서 萬歷시대(明代神宗 1573-1579)까지 보존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 약간의 修理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清末 御醫 任錫庚은 「太醫院志」에서 太醫院署藥王廟에 보관하던 銅人이 正統銅人으로, 몸둘레에 穴자리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상세하여 针灸와 醫學의 模範이 되는데 鑄造年代가 明나라 正統年間(1435년에 시작)이라고 한다.

이외에 清代末 太醫院醫士 馬載之는 「銅人經穴備考」²⁾에서 銅人原流說에서 清代 太醫院의 銅人은 明代 正統年に 鑄造된 것이라고 이것은 宋代것을 모방했는데 과거의 銅人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며 明末 戰亂때(李自成의 亂等) 正統銅人은 악탈되어 頭部가 손상이 되어서 清初에 새로 주조했는데 이것이 複制正統銅人이다(1644-1661).

이후 清末 八國聯合軍(淸 光緒26년 1900년도에 의화단 사건에 따라 北京을 공략하기 위한 8개국 연합부대) 때 악탈되었다가 교섭을 통해 돈을 주고 三皇銅像과 함께 针灸銅人을 회수하게 된다.

張慶云, 蘇秉均 두 사람도 複制銅人은 明代銅人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고 그 주요 목적은 正統銅人의 剥손된 부분을 補充하고 매우기 위한 것이라 했다.

正統銅人의 保存과정은 자세히 알려져있지 않으나, 겨우 알아낸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레닌박물관에 正統銅人이 보관이 되어있어 1958년 중국의학대표단이 파견되어 확인한 결과 초기의 正統銅人임이 확인되었다.(銅人の 體內는 비어있고 바깥은 두껍게 銅版을 하고있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나 몇 부위에 가늘고 긴 파손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파손 후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4년 光緒30년에 正統銅人 複制銅人이 太醫院新址에 보관되다가 1912년 京師警察署로 옮겨

지고 1925년 故宮博物館으로 1936년 南京博物館으로 갔다가 現在는 北京 歷史 博物館에 보관중이다.(銅人의 높이-203cm, 무게-130斤 짜얇고 안은 비어있으며 穴數는 364개다)

1956년 中醫研究院에서 銅人을 하나 제작했는데, 무게 114.5斤, 穴數 664개 높이 182.6cm, 머리둘레 66cm, 가슴둘레 104cm, 배둘레 100.5cm, 背部 大椎에서 長強까지 72cm, 肩髃에서 曲池까지 39cm, 曲池에서 陽谿까지 26.4cm, 耻骨上緣에서 膝蓋骨까지 34.2cm 膝蓋骨內側에서 內踝까지 38.9cm이다. 이 銅人的 특징은 조각이 정교하고 經穴名이 세밀하다는 점이다(그림2).

3. 嘉靖銅人

明나라 世宗 嘉靖간(1522~1566)에 제조된 銅人으로 正統銅人보다 약 100여년 정도 늦게 만들었으며 현재 北京 古宮博物館針灸銅人이嘉靖銅人이다. 이 銅人的 특징은 정교하여 아름답고 색택도 푸르스름하여 예술성이 좋다. 또 經脈과 穴 자리가 정교하다(그림3).

@構造的 特徵:

높이-95.2cm; 내부가 비어있지 않아 비교적 무겁다. 무게-162.5斤

.銅人の 외형은 成年裸體男子, 머리둘레-43.2cm, 가슴둘레-53.5cm, 배둘레-59.8cm, 大椎에서 長強까지-31.6cm, 肩髃에서 曲池까지-16.8cm, 曲池에서 陽谿까지-14.5cm, 耻骨上緣에서 股骨內上踝까지-17cm, 股骨內上踝에서 內踝까지-18.5cm

이 銅人이 비록 小型이지만 세밀하고 정확하다 天聖銅人과 正統銅人과 비교하면 穴位置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4. 元明시대의 기타 針灸銅人

元代이후에도 각지에서 계속적으로 약간 작은 針灸銅인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는 民間醫師가 만든 것도 있고, 地方官廳에서 제작한 것도 있는데, 그 방면에 관련된 사료는 극히 적고 다만 몇 가지 기재된 것이 있어서 소개한다.

1. 元·明시대 사이의 銅人…제작자는 알 수 없고, 문헌에 기재된 곳이 없다. 明代 전국초기인 洪武년간(1368-1398년)에 日人이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제조 연대가 적어도 1398이전이며

혹은 元末에 제조되었을 것이다.

2. 明初銅人…제작자는 알 수 없고, 문헌에 기재된 것도 없다. 明代 永樂13년(1415년)에 조선인이 조선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제조 연대가 明代初期로 보여진다.

3. 高武가 주조한 銅人…역대 銅人은 鍼灸사용의 연구목적으로 만들어져서 鍼灸학습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지표와 지침이 되어왔다. 따라서 민간의사가 모방하여 주조한 자가 적지 않았다. 그 중 명대 저명한 鍼灸학자인 高武씨가 만든 3가지(男子, 婦人, 小兒)의 針灸銅人이다. 高武는 明代嘉靖때의 사람으로 1546년에 <針灸聚英發揮>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4. 蜀府銅人…明代 四川城의 官醫院에서 있던 針灸銅人으로 의사를 시험하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明末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

5. 明末銅人…제작자는 알 수 없고, 국내 문헌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 明末에 日人이 일본으로 가져간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6. 半跪式銅人(반쯤 끓어앉은 銅人)…이 銅人은 明末에 民間에서 어떤 의사에 의해 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대와 제조자의 성명은 알 수 없다. 이 銅人的 특징을 보면, 전체가 黃銅으로 주조되었고, 한 몸체로 되어있어서 분해가 안되며, 안은 비어있다. 전신의 높이는 77.5cm이며, 사각형의 받침에 고정되어져 있다. 받침의 높이는 9.5cm이므로 전체의 높이는 87cm이다. 右側상지는 늘어뜨리고 있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였다. 左側상지는 외측을 향하여 들고 있으며,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고, 前臂를 쳐들고 있어서 손과 머리가 가지런하다. 左側下肢는 膝部가 약간 굽어져 있다. 右側下肢는 膝部에서 뒤쪽으로 작각으로 굽어져 있어서 반쯤 끓어앉은 형상이다. 무릎 끝 아래에는 구멍이 한 개 있는데 받침에서 위로 올려보면 등근 원형의 기둥이 보여서 무릎이 여기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손 中指의 關節이 앞으로 굽어져 있어서 中指의 가운데 마디의 同身寸法을 나타낸다. 머리의 좌우 길이는 13.5cm이고, 구간의 길이는 32cm이고, 어깨의 좌우길이는 20.2cm이다.

第4節 近代針灸銅人¹⁾

1. 乾隆銅人 (그림4)

清代 1745년(乾隆10년)에 太醫院에서 다량의 针灸銅人을 제조하였는데, 이것이 乾隆銅人이다. 이에 대한 문헌을 보면, <清史稿>에서만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丁濟民의 <銅人始末>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청나라 정부에서는 1740년(乾隆5년)에 80명의 의학자를 동원하여 <醫宗金鑑>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1744년(乾隆9년)에 완성하여 그 편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醫宗金鑑> 한부와 銅人상 한 개씩을 주었다. 그후 많은 소형 銅人들이 다량 주조되었으나, 대부분 소실되고 그 소재도 불분명하며, 다만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은 福海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 하나뿐이다.

乾隆銅人の 외형은 신체는 수척하며 길고, 서있는 자세이고 頭頂部에 머리무늬가 있고, 이마에 가로로 주름이 있으며, 전신에 十四經脈의 循行路線과 經穴의 작은 圓形 구멍이 새겨져 있다.

2. 雍正銅人

清代 雍正(세종연호)시대에 太醫院에서 주조한 소형 针灸銅人이다. 길이가 25.5cm이고 무게가 1.07kg이다. 반침에 부착되어 있고, 황색 비단으로 된 책갑에 안에 쌓여 있고, 그 책갑에는 銅人 제조에 대한 글과 날짜등이 기재되어 있다.

3. 光緒銅人

관청에서 복제한 정통 銅人이다(앞에서 소개하여 생략함).

4. 錫制“銅人”

錫制“銅人”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료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 銅人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내려온 것으로 그 연원을 잘 알 수 없고, 다만 銅人의 색택, 재질, 외형, 혈명, 혈수 등의 자료를 보아 明·清시대에 제작되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銅人은 전체가 주석으로 제작되었다. 남성이며, 신장이 57.5cm, 회백색을 띤다. 몇부분이 거무스름하여 약간 부식되었다. 배꼽 위쪽이 분해가 가능하다. 그 안은 비어 있고, 머리 윗부분이 얇은 껌질 모양의 모자(髮冠)같은 것으로 덮어 씌워져 있는데, 역시 주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윗면에는 머리카락 무늬와 가마가 새겨져 있다. 가마

兩側에는 나선형의 상투모양의 것이 각각 하나씩 용접되어 있다. 이는 좌우 아래의 귀밑머리가 나는 곳을 표시한 것이다. 髮冠을 흑색으로 칠하였고 현재는 많이 벗겨졌다. 髮冠의 작용은 발제부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髮冠을 떼내면 뒤쪽의 머리에 있는 모든 혈을 볼 수 있다.

銅人の 각 부분의 비례와 형상은 정상 인체의 표준이다. 全身에 십사경맥이 새겨져 있고 각 경락은 이중선으로 새겨져 있어서 파도모양 같다. 經穴엔 구멍이 없고, 穴名만 보인다. 신체 좌우측의 대칭되는 혈명을 서로 합하면 혈 전체가 된다. 전신의 혈수는 한쪽만이 359혈, 양측합하면 666혈이 된다. 穴名의 대부분은 일반 鍼灸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만 새기는데 있어서 오류가 약간 있다. 예를 들면 “俠白”이 “夾白”으로 되어 있고, “步廊”이 “少廊”으로, “大杼”가 “天杼”로, “關元俞”에는 “俞”자가 빠져 있고, “委中”은 “委房”, “外丘”는 “外血”, “陽陵”은 “陽泉”, “地五會”는 “五會” 등으로 되어 있다.

經脈과 經穴位置에 있어서 銅人이 작기 때문에 정밀하긴 하나 일반 鍼灸서적과 차이가 큰 것 적지 않다. 經脈方面에 있어서는 脚부의 足厥陰經의 위치가 足陽明經과 足太陰經 사이에 있고, 下肢부의 足厥陰經이 시종 足太陰經의 앞쪽을 나란히 주행하면서 교차하지 않는 등의 점이다. 經穴方面에 있어서 胃脈의 “歸來”, “氣衝” 두 穴을 대퇴부 위쪽에 두었고, 日月혈이 期門혈의 외측 상방에 있고, 上髎穴의 위치가 命門혈의 외측上方에 있는 등이다.

5. 樂家醫院에서 주조한 銅人

민간에서 주조된 銅人에 있어서 明·清이후에 비교적 많은 것이 주조되었다. 그중 오늘날 남아 있는 것으로 樂家醫院에서 주조한 针灸銅人 있다. 최초의 것은 北京同仁堂銅人이며 이와 유사한 것이 6개 이상 있었다.

최초로 주조된 구체적인 연대는 알 수 없고, 청대 중엽에 최초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1661-190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①北京同仁堂銅人(樂家醫院에서 가장 먼저 주조한 것.)

黃銅으로 주조되었고 淡黃色이 칠해져 있다. 외형을 보면 나체남자로 높이가 78.8cm이고 오른

쪽 상지를 늘어뜨리고 있고, 엄지손가락이 앞을 향하고, 손바닥이 내측을 향하게 하고 있다. 좌측 上肢도 늘어뜨리고 있는데,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되어 있다. 銅人의 머리부분에는 짧은 머리와 髮際가 새겨져 있으며, 목부분에는 큰 근육이 응기되어 있다. 등부분은 21椎와 선추의 윤곽이 잘 드러나 있고, 앞가슴에는 鎮骨이 내측끝과 胸骨의 下端 합물부가 표시되어 있다. 肋骨부분에 있어서는 등쪽의 제5늑골아래, 胸部의 제6늑골아래에서 季肋부의 제12肋骨의 윤곽과 肩胛骨 내측선과 下角부분이 잘 드러나 있다.

銅人の 체표에는 經脈이 없고, 經穴만이 圓形의 핵몰로 얇게 뚜렷이 있고 옆에 穴名이 명조체로 되어 있고, 필법이 세밀하다. 全身의 혈명은 총 355 혈이고, 이는 <銅人腧穴針灸圖經>에 기재된 穴名과 같다. 全體가 하나의 몸체로 鑄造되어 右側손 小指와 右側손 前臂部의 중앙쪽, 左側손 前臂部의 小指축의 모든 혈은 穴名이 새겨지지 않아서 다른 쪽의 같은 혈을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經穴 위치에서 脊肓(神堂의 上方 약 五分)에 위치하여 일반 取法보다 비교적 낮다), 氣衝(鼠蹊부에 위치하여 歸來혈의 外傍, 衛門혈의 直下方에 있어一般 取穴法과 다르다), 大迎(앞뺨과 下顎骨의 下方에 있어서 일반 取穴法에 비해 낮다) 등 취혈방법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이 있다.

經穴 명칭에 있어서도 <銅人腧穴針灸圖經>과 대부분 같은 것 외에 몇 개 穴名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大腸經의 좌우 “煩車”가 “夾車”로, 膀胱經의 좌우 “大杼”가 “大舒”로, “浮郄”이 “浮谿”로, “跗陽”이 “輔陽”으로 膽經의 좌우 “俠谿”가 “挾谿”로 되어 있는 것이다.

②上海達仁堂銅人

北京同仁堂銅人과 같은 거푸집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외형과 크기가 같다. 개별 부위에서만 加工이 같지 않아서인지 약간 다른점이 있다.

全身이 黃銅으로 주조되었고, 표면이 暗黃色이다. 두 발이 쇠막대기에 의해 받침에 안착되어 있어서 北京同仁堂銅인이 받침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銅人과 받침의 무게가 합해서 94.5市斤(47.25kg)이다. 오른쪽다리의 내과 조금 앞에 약간의 과손이 있다. 全身에 經穴이 새겨져 조각되어 있고 대체로 北京同仁堂銅人을 닮았다. 단

체인된 글자체가 해서이고 글자 새겨진 것이 세밀하고 새롭다. 따라서 이것이 北京同仁堂銅人의 복제품임을 알 수 있다. 두 銅人은 全身의 穴名도 같은데, 몇 가지의 문자에 상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大腸經의 좌측 “陽谿”를 “陽谷”으로, 胃經의 좌우 “煩車”를 “夾車”로, 膀胱經의 좌우 “大杼”를 “大舒”로, “浮郄”을 “浮谿”로, “魂門”을 “魄門”으로, “盲門”을 “肓門”으로, “胞肓”을 “胞育”으로, “跗陽”을 “輔陽”으로(좌측缺穴), 三焦經의 우측 “中渚”를 “冲渚”로, 좌측 “角孫”을 “通孫”으로, 膽經의 좌우 “目窗”을 “巨窗”으로, “俠谿”를 “挾谿”로, 肝經의 우측 “中封”혈의 “封”자 부분의 동이 떨어져 나갔고, 좌측 “膝關”은 “膝陽”으로, 우측 “膝關”은 “漆陽”으로 되어 있다.

③濟南宏仁堂銅人

北京同仁堂銅인의 外形과 매우 유사하다. 같은 거푸집을 사용하여 주조된 것 같고, 단지 조각된 글자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

④北京頤齡堂銅人

전해지는 지는 알 수 없고 銅人의 외형이 北京同仁堂銅人와 제조된 것을 모방하였다 한다.

⑤天津達仁堂銅人(형태와 제조된 것이 北京同仁堂銅人과 같다.)

⑥漢口達仁堂銅人(전해지지 않음)

제5절 日本의 针灸銅人

1. 日本에 전래된 针灸銅人^{1,9)} (그림5)

日本文獻에根據하면 明初에서 明末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针灸銅人이 각 一座씩 傳來되었다.

①竹田明室이 日本으로 傳來한 銅人

製造年代는 元代와 明代 사이로 생각되며 傳來는 明代初期이다.

②久田昌仄이 日本으로 傳來한 銅人

明時代에 久田昌仄이 한 개의 銅人을 日本에 가져갔다.

2. 日本에서 製造된 针灸銅人

中國으로부터 针灸銅人이 전래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銅人들이 製造되게 되었다.

①金屬網式銅人-1662년(寔文2년)에 製造됨.

②木製小“銅人”-日本帝室博物館의 解說書에 最初로 記載된 銅人. 1684년 製造됨.

③盲人用針灸銅人之一-日本의 盲人们이 鍼灸師로 활동한 역사에서 최초로 教育用으로 製造되고 使用된 銅人

④盲人用針灸銅人之一-1884년(明治16년)에 盲人用으로 製造된 銅人

⑤明治頃小銅人-製造年代는 불확실하나 19世紀로 推定됨.

⑥杉山遺德이 製造한 銅人

⑦玉森貞助가 紙面上에 設計한 銅人-製造年代는 20世紀 三十年代부터 四十年代

⑧日本醫師會(醫道之日本社)에서 製造한 銅人-1949년에 日本醫師會에서 製造한 것으로 현재 日本 東京博物館에 소장중

⑨尾田喜八이 製造한 銅人

⑩鍼灸經穴電光人形板-森秀太郎이 製造

제6절 한국의 침구동인과 표준침구동인의 개발·제작

1. 韓國의 鍼灸銅人

(1)昌德宮 銅人(鍼金銅人)^{6,10)}

현존하는 昌德宮 銅人은 그 명칭이 <鍼金銅人>이며 昌德宮 秘苑의 仁政殿에 車行閣에 保存되어 있던 것으로 1922년부터 昌德宮 宮中遺物展示館에서 현재 공개 전시되고 있다¹⁰⁾.

이 鍼金銅人은 銅으로 주조되어 있으며 체표 전신에 흐르는 經穴이 陰刻으로 前後面과 四肢, 頭部등에 刻線되어 있고 이 刻線上에 陰點으로 經穴을 뚜렷이 나타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紙面에 正人形, 伏人形으로 黑線이나 彩色으로 그린 經穴圖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뿐, 인체 실물과 같이 銅으로 주조하여 신체 각 부분에 經穴을 나타내고 각 經穴의 명칭을 陰記한 인체모형상은 이 昌德宮 銅人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鍼金銅人の 제작 년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으며 崔周若의 明來說과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하였다는 설이 있다.

明來說은 중국측에서 주장으로 그 근거로 《韓國通信》에 金容植이 적은 글로 “朝鮮 太宗 15년(1415년)에 朝鮮人 尹吳眞이 中國을 방문하여 中國에서 製造된 小型 鍼灸銅人 하나를 請하여 같 은해 10월 23일 朝鮮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朝

鮮에 銅人이 傳來되게 되었다.”라는 글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하였다는 設⁶⁾은 世宗 15년(1443년) 典醫提調 黃子厚의 견의에 따라 鍼灸專門法을 만들고 鑄鍾所에 명령하여 銅人을 製造하게 한 후 그것으로 鍼灸專門醫들이 點穴法을 철저히 배우고 試才케 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中國의 北京 中醫研究所 醫學史博物館에 소장된 銅人(天聖銅人復原)이나 日本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銅人이 昌德宮 鍼金銅人과 비교해 볼 때 北京銅人과 東京銅人은 그 형상은 같지만 昌德宮銅인이 사뭇 다른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설 모두 정확한 문헌적 고증이 없어 확실하지는 않다.

②鍼金銅人の 形態 및 構造的 特徵(그림6)

①壯年의 男子形

②크기가 86.0cm, 머리둘레 37.8cm, 어깨폭 22.5cm, 팔길이 40.0cm, 무게 18.5kg

③전신에 흐르는 經穴은 陰刻線으로 前後面과 四肢, 頭部등에 刻線하고 이 각선상에 陰點으로 經穴을 뚜렷이 나타내었으며 體表에는 經穴名稱을 陰刻하였다.

④胸腹腔에는 臟器를 두고 가운데에는 비어 있었다.

⑤上肢는 몸체중에서 肩胛部와 분리할 수 있게 하였고 下肢와 頭部도 분리되는데 頭部는 前後로 분리할 수 있게 하였다.

⑥經穴數는 총 수는 354穴(宋代의 銅人腧穴鍼灸圖, 元代의 十四經發揮과 동일)

⑦百會部位에는 直徑 1cm의 穿孔과 그 양측에는 4mm의 補助구멍이 있다. 百會穴부의 穿孔은 물을 부을 때 사용하는 구멍으로 蜜蠟을 100℃로 끓여 銅人을 그 속에 담가 穴空이 막히게 한 후 銅人의 동체를 塗蠟하여 銅人체표의 경혈점을 알아 볼 수 있게 한 다음 百會部의 구멍으로 물이나 수온을 붓고 鍼灸醫를 시험할 때 시험자가 경혈을 刺針하면 물이나 수온이 나오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한다.

2. 표준 鍼灸銅人の 제작

(1)鍼灸銅人 開發의 必要

현재 韓國에는 11개의 韓醫科大學에서 韓醫學의 研究 및 教育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教育機

關과 臨床家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銅人形이 주로 中國에서 수입하여 쓰고 있는 低價形 고무人形이다. 이 銅人은 經絡·經穴의 표시가 中國式略字로 되어 있고, 그 설명에 있어서도 중국어로 표기되어 일반인은 물론 한의학과 연관된 사람들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학문에 대한 종속성의 문제도 있다. 또한 材質면에서도 낮은 단가를 추구하여 保存性이 떨어지며, 크기면에서도 작아 銅人의 活用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이 만든 銅人이 없다는 점으로서, 본 鍼灸銅人の製作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輸入 銅人形을 대체할 한국형 표준 동인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기관에서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世界속의 韓國 韓醫學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을 비롯한 전국의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이 합력하여 이번에 개발한 鍼灸銅人은 현대인의 標準 체형을 기준하되, 經絡의 流注 路線이나 穴位의 정확한 表現을 위해 經穴學的 取穴姿勢나 人體의 體表에 나타나는 筋骨의 特徵別 모양을 重視함으로서 經穴의 取穴을 容易하게 하여 한의학을 工夫하는 學生이나 臨床에 임하고 있는 醫療人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銅人形의 形態

본 標準 鍼灸銅人은 기존에 존재하는 輸入 銅人形을 대체할 한국형 동인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교육 기관에서 표준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작한다. 특히 동인형의 한국형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동인형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내구성과 가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형태를 구상하였다.

① 모양 : 정상 성인 남자-여전이 닿으면 여자의 동인까지

② 종류 : 樹脂銅人과 순청동 동인, 크기의 다양성

③ 외형 : 경락 경혈의 위치를 문헌적 자료에 바탕하고 인체의 해부학적 위치에 준하여 가능하면 인체의 실체를 따르되, 取穴시 體表에 확인되는 筋骨의 特徵은 살리기로 함

④ 모델 : 한국인의 標準體形을 기준

⑤ 받침대 : 우측 받침대를 地球儀 모양으로 하고 韓國을 그 한 中心으로 한다 (그림7).

(3)銅人製作의 進行

1955년부터 제작을 시작한 동인형의 제작작업은 대명의료기와 해성사의 협조아래 진행 중이며, 그간 數次에 걸친 全國 韓醫科大學 經穴學教室 주임교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교정을 거쳐 현재 90% 이상의 작업이 진행되어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중이며, 純銅 材質의 銅人形 작업도 진행 중이다.

IV. 結論

1. 現在 存在하는 자료에 따르면 先秦에서 秦代에 이를 때 이미 銅人製造가 시작되었다. 中國의 古代의 문헌기록내용을 보면 周시대에는 이미 金人이라 부른 비교적 거대한 銅人의 출현이 있었다.

2. 歷史上 世界最初로 人體 解剖 및 經脈 穴位를 측정하여 사용한 鍼灸銅人은 1027년 宋나라 醫官院에서 王維一에 의해 주조된 天聖銅人이다. 2개의 銅人을 주조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醫官院과 大相國寺 内의 仁濟殿에 두고 醫官院에서는 醫官과 生徒들이 研究 學習하는 용도로, 大相國寺에서는 鍼灸考試를 거행하거나 鍼灸경락수혈, 내장 골격을 학습하여 중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3. 元代에는 전국 초기 南宋으로부터 이어져온 天聖銅人의 보수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明代에는 正統銅人과 嘉靖銅人이 보다 정교하게 鑄造되었다.

4. 清代에는 乾隆銅人, 雍正銅人, 光緒銅人, 錫制“銅人”, 樂家醫院에서 주조한 銅人 등 醫宗金鑄 이후로 많은 銅人들이 제작되었다.

5. 日本에는 中國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鍼灸銅人이 전래되었다. 그것은 竹田明室이 日本으로

傳來한 銅人과 久田昌灰이 日本으로 傳來한 銅人으로 이후 10개의 銅人們이 일본에서 제조되었다.

6. 現存하는 韓國의 昌德宮 銅人은 그 명칭이 <鍼灸銅人>이며 昌德宮 秘苑의 仁政殿에 車行閣에 保存되어 있던 것으로 1922년 부터 昌德宮 宮中遺物展示館에서 현재 공개 전시되고 있다. 이 銅人은 明來說과 朝鮮에서 製造되었다는 두 說이 있다.

7. 현재 한국에서는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經穴學教室을 비롯한 全國 韓醫科大學 경혈학교실에서 합력하여 人體의 特性을 충분히 살린 표준 침구동인을 개발하여 제작을 진행중이며,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참고문헌

1. 馬系興, 鍼灸銅人與銅人穴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63.1993
2. 林昭庚,鄆良. 鍼灸醫學史.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206. 1995.
3. 郭世余.中國鍼灸史.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49-157.1989
4. 陳克正.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65-66.1993
5. 金重完,古典鍼灸銅像과 中國樹脂銅像의 比較研究. 圓光大學校 韓醫學科 學位論文抄錄集 1992
6. 鄭遇悅, 昌德宮 銅人에 대한 小考. 서울. 韓國科學史學會紙 16-1. 1994.
7. 實用鍼灸辭典編委會, 實用鍼灸辭典, 北京. 知說出版社 574,575. 1970.
8. 張吉 .各家鍼灸義賊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53,54. 1994.
9. 木下晴都,代田文彥.圖說 東洋醫學 經穴編. 東京. 學研. 19-21. 1985.
10. 文化財管理局,宮中遺物圖錄 . 서울. 文化公報部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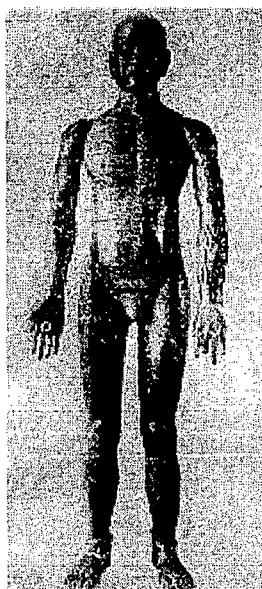


그림 1 天聖銅人(世界最初의 鍼灸銅人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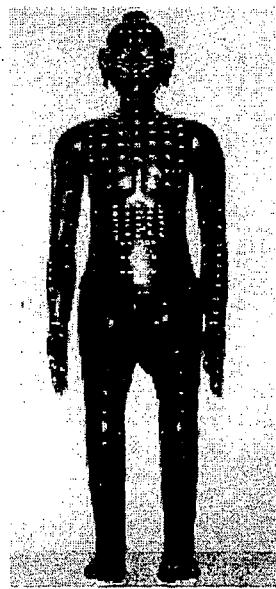


그림 2 復制正統銅人
(光緒銅人) (1904년制)



그림 3 嘉靖銅人
(1522-1566년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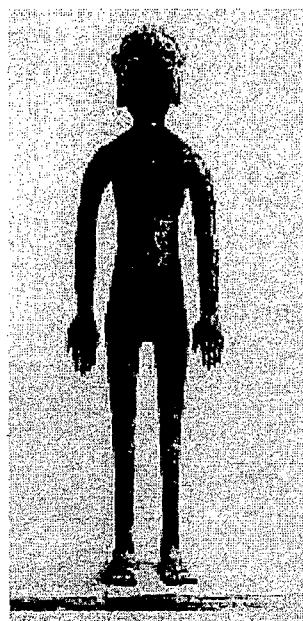


그림 4 乾隆銅人
(1745년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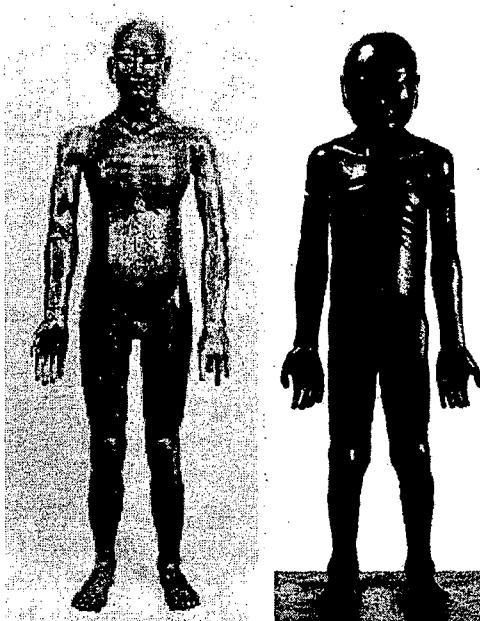


그림 5 銅人形(東京國立博物館 所藏)
天聖銅人이明代에 日本으로 건너갔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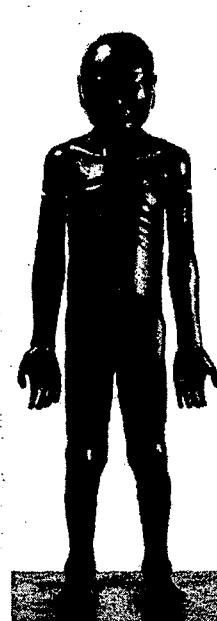


그림 6 昌慶宮銅人 (鍼金銅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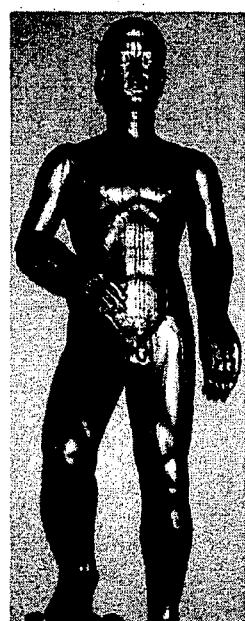


그림 7 標準鍼灸銅人 (全國韓醫科大學經穴學教室 製作)